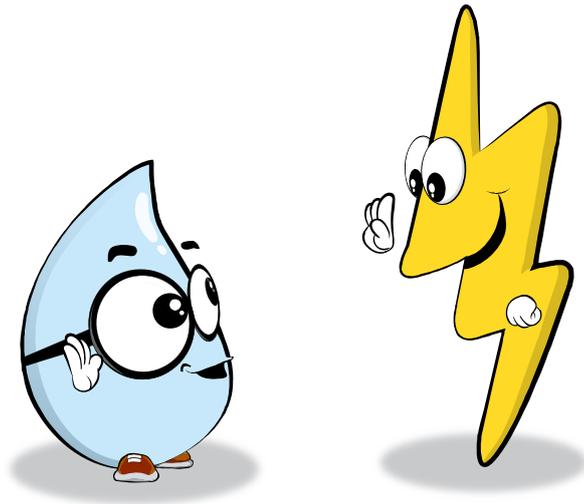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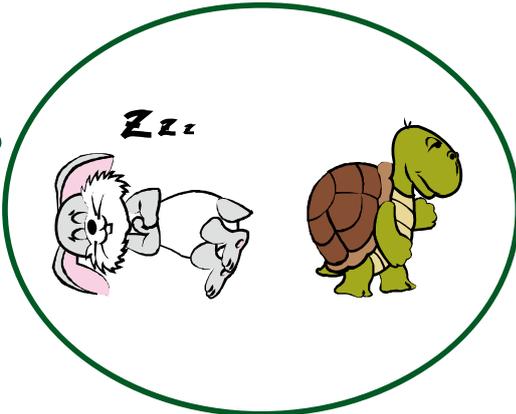


제 1편

물질과의 가벼운 인사



소설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고, 이런저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.



그와 마찬가지로

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야기에서도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, 그들은 여러 물질입니다.

그 물질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.

물질?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... 알듯말듯.

우리는 이런 동물들을 거북이라고 부릅니다.

그리고 이런 동물들은 토끼라고 부릅니다.

그런데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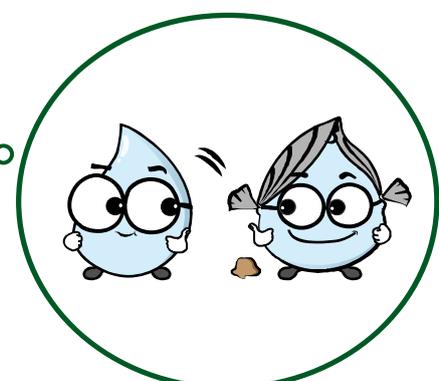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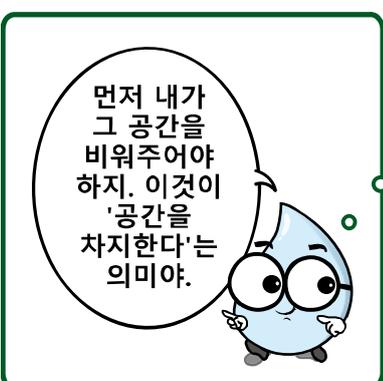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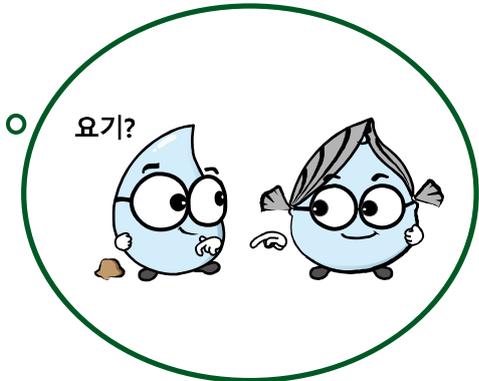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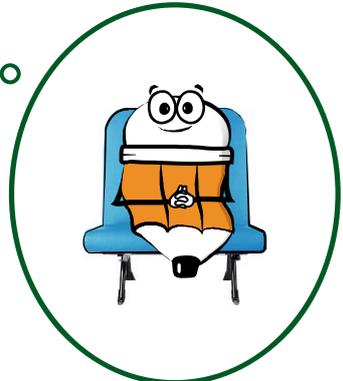
한 동물이 나타났습니다. 이 동물을 토끼라고 할지 거북이라고 할지 결정할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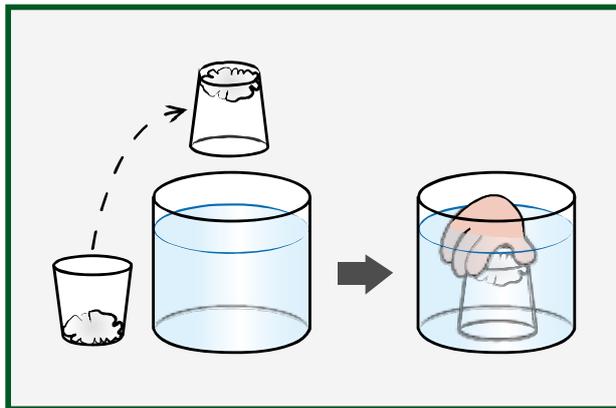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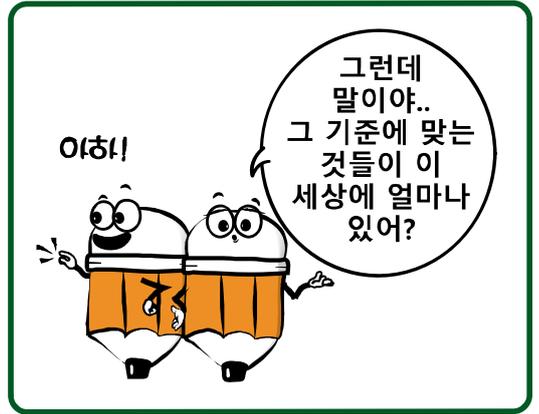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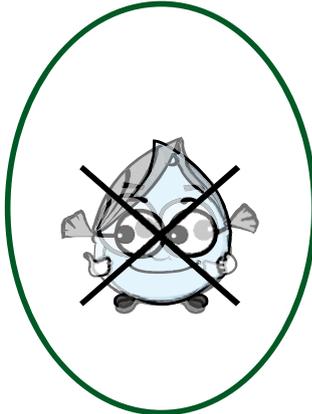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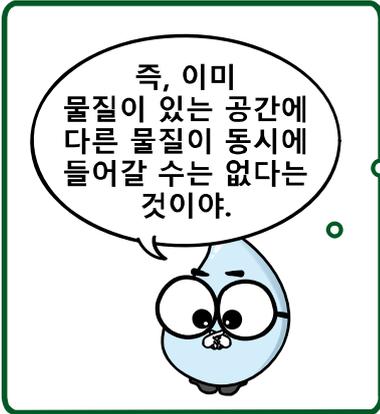
그야 새로운 동물이 토끼의 특징을 가졌는지 거북이의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 내는 거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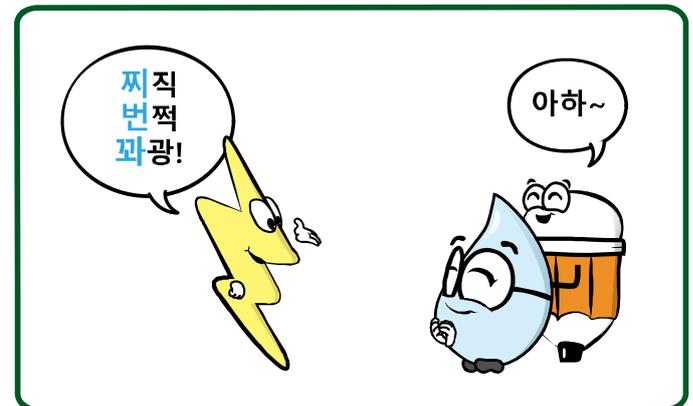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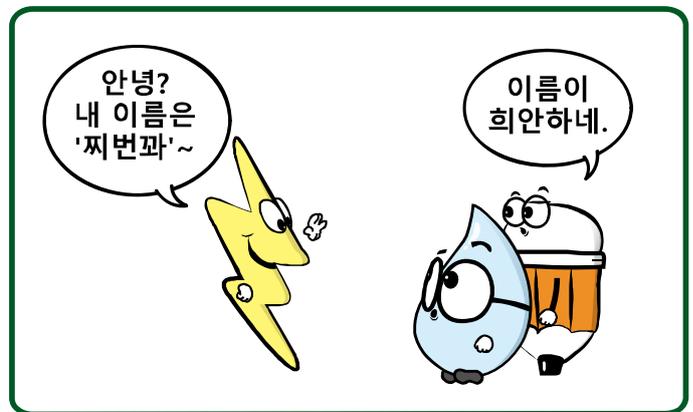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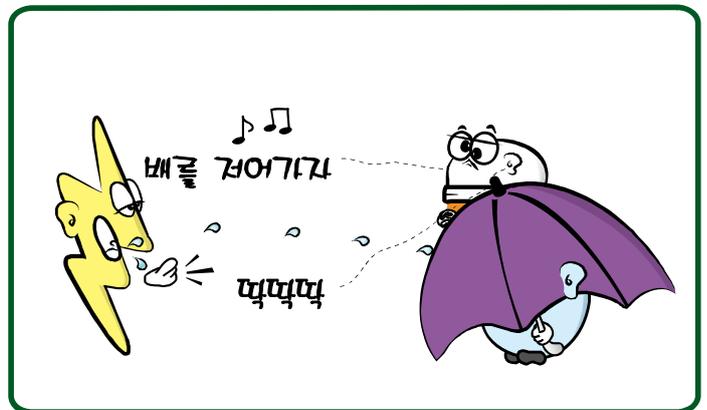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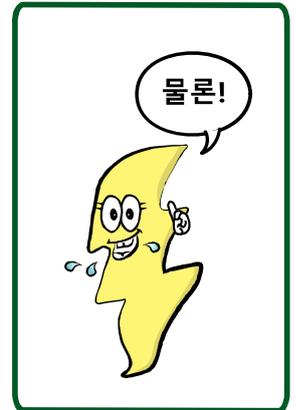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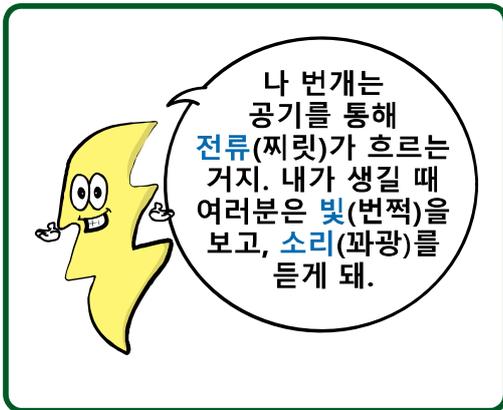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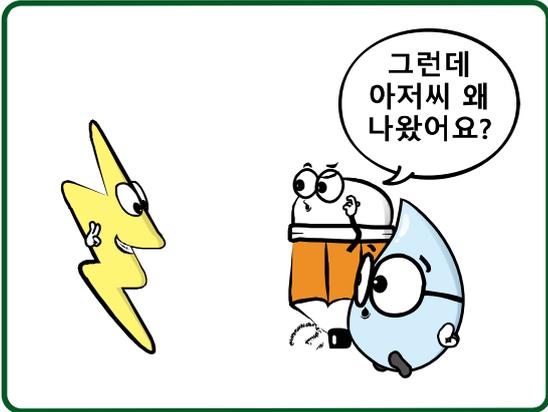
물질로 구분되는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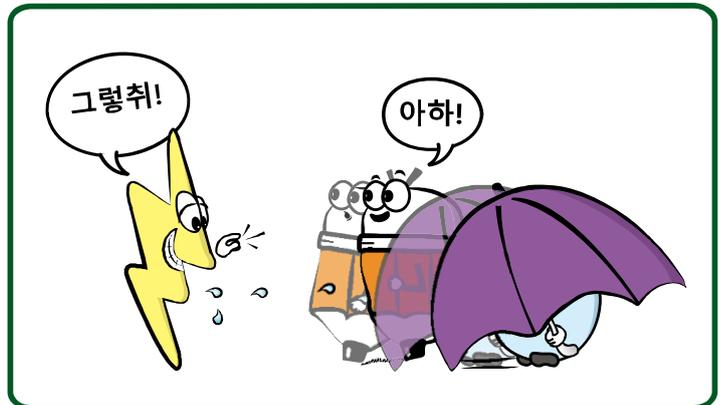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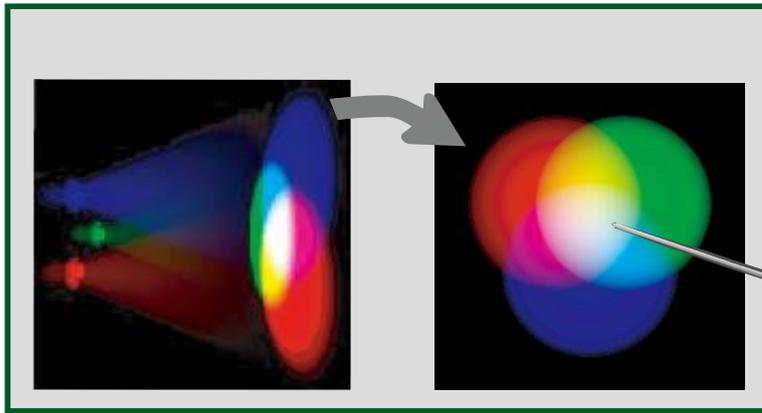
공간을 차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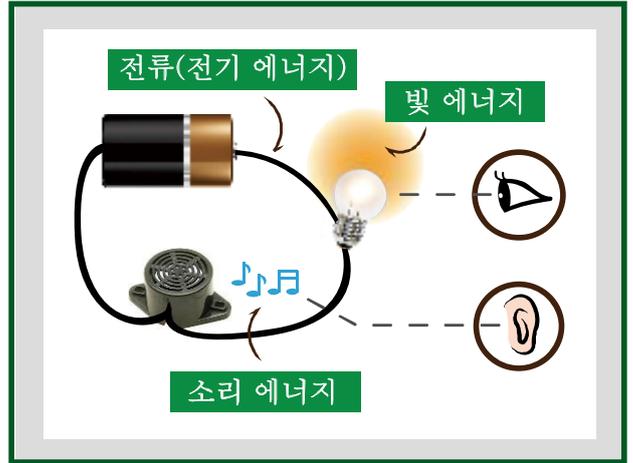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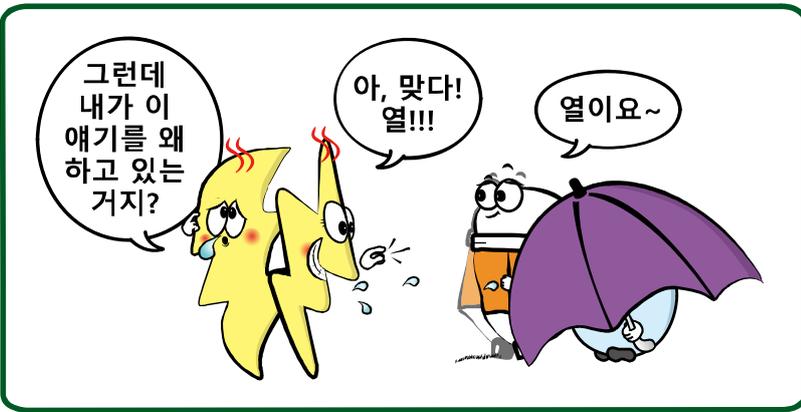












자동차는 기름이 가진 에너지를 이용하여 움직이지.




음식물이 가진 에너지를 사람이 이용하는 것과 같군요.



물질들은 실재없이 변화해. 그리고 물질들이 변화할 때에 그들이 가진 에너지도 함께 변하지.




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변할 때 가장 흔히 등장하는 것이 열이야.




앞으로 물질의 여러 가지 변화를 알아볼 때 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기회가 있을 거야.

후~



그런데 너 물! 사람들이 너를 피하려고 쓰는 게 우산인데, 네가 그걸 쓰고 있는 건 좀 우습지 않니?

그래도 아저씨 물은 왠지 찼찼...



기분 찼찼하군. 난 이제 땅속으로 사라져야 겠어.

스르르



